

# ‘사과는 했지만..’ 무슬림 분노 여전

교황 “‘지하드’ 발언 내 의견 아니다” 유감 표명 불구 테러 속출

◇교황 사과=교황은 이날 자신의 ‘지하드’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교황은 여름 거처인 로마 외곽 카스텔 간돌포에서 문제의 발언은 중세의 책을 인용한 것일 뿐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것이 아니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문제 발언이 나왔던 자신의 독일 방문을 거론하면서 “레겐스부르크 대학 강론 가운데 몇몇 구절이 무슬림의 감정을 거슬리게 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인용했던 문제 발언 내용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로마 가톨릭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7일 이슬람을 폭력적 종교로 묘사한 것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의 뜻을 나타냄에 따라 교황 발언의 파문이 가라앉을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교파들이 지배하는 소말리아에서 이날 이탈리아 출신 수녀가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란은 교황청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교황의 사과발언을 놓고 이슬람권의 반응이 엇갈려 휴유증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 열릴 예정이라고 이란 정부는 밝혔다.

이집트의 무슬림 성직자인 유세프 알-카라다위는 교황의 이날 사과를 적절한 사과로 볼 수 없다면서 문제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소말리아서 이탈리아 수녀 피살=이날 오전(현지 시각)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아동병원에서는 현지인들을 상대로 간호 교육을 시키는 등 봉사 활동을 해온 65세 이탈리아 수녀가 피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바탄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

## 무슬림형제단·인도 등 일단 수용

◇이슬람권 반응 엇갈려=교황 발언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은 교황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의 모하메드 마흐디 야기프 대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에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점잖게 대할 것을 가르친다”며 교황의 발언을 사과로 간주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슬림 인구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은 인도의 이슬람 기구도 교황의 사과 발언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스마일 하니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는 17일 발생한 서안지구 교회에 대한 공격행위에 대

해 “기독교 형제들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일부”라며 “팔레스타인 영토내 교회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요르단 의회는 17일 이슬람의 폭력성을 시사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발언에 대해 기독교와 이슬람 기구와 성직자들이 비판하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교황의 사과 발언이 나온 이날 교황청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였다.

시아파 성직자 교육기관이 있는 이란의 콰에서 이날 약 500명의 학생들이 교황 발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금주 중 콰와 테헤란에서 성직자들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교황 발언 규탄 집회가 있

## 이란 대사 소환·소말리아선 수녀 피살

부는 “끔찍한” 이번 사건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안사통신이 보도했으며 이탈리아 외교부는 자국민에게 소말리아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전망=교황이 직접 사과 발언을 했음에도 휴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이슬람권 언론들이 교황의 발언을 빌미로 종교 간 대결을 부추기는 논조를 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한 상황이다.

이란의 한 신문은 이날 “교황의 거친 발언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십자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암호”라고 주장해 이번 사태를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충돌로 몰아가려는 듯한 논조를 폈다. /키로=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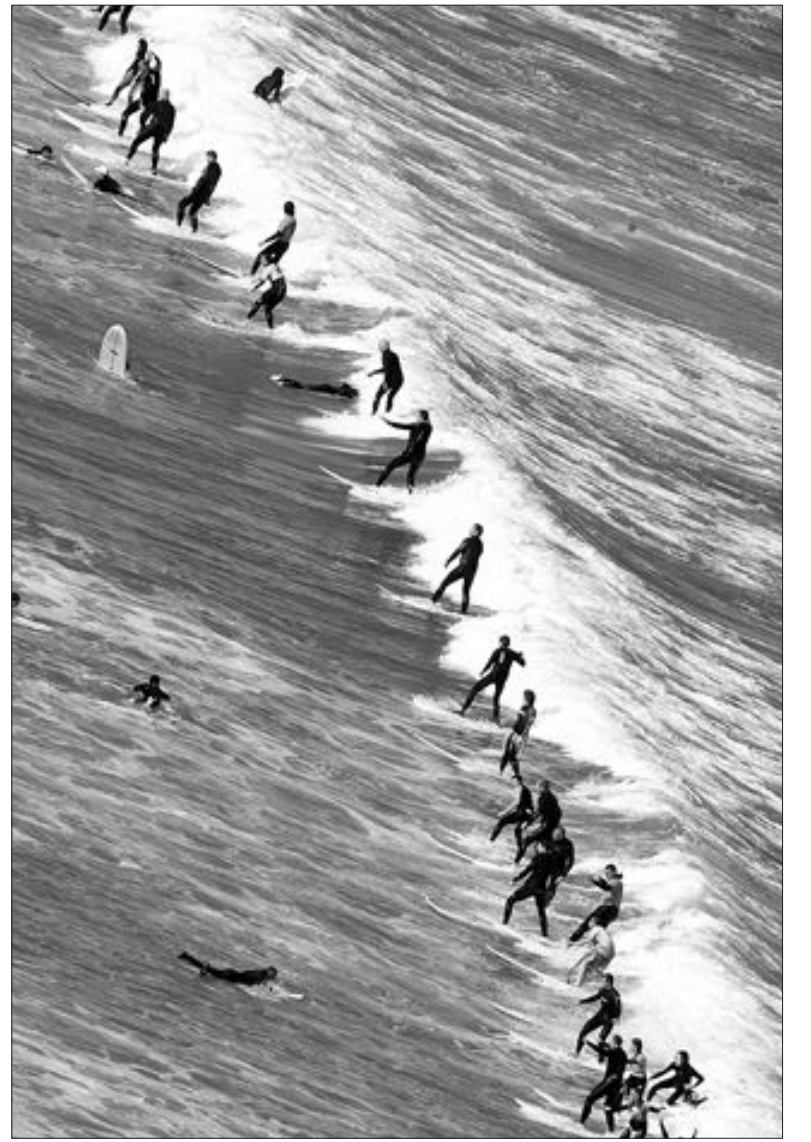
## 日本 열도 ‘거대분화’ 소나 1만년에 한번볼 가능성 높아

일본 최고봉인 후지산이 10만년에 걸쳐 흘러냈던 용암을 한번에 분출하는 ‘거대 분화’가 열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연구자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파멸적인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해 이른바 ‘파국(破局) 분화’라고 불리는 거대 분화는 통계적으로 1만년에 1차례 꼴로 일어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일본에서 발생할 경우 ‘일본 침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종합적인 지질 조사 및 예측 등의 연구에 착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중부 알프스의 연봉(連峰)들은 과거 ‘거대 분화’가 발생했던 지역. 신슈(信州)대 연구진에 따르면 175만~176만년 전 당시 평지였던 이 지역에서 ‘거대 분화’가 발생하면서 동서 6km, 남북 16km, 깊이 3km의 함몰이 생겼다. 화산재 등 분출물은 400km의 면적에 걸쳐 흘러내렸다. /도쿄=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메이전버그 해변에서 17일 사상 최대의 파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행사 주관자들은 73명의 서퍼들이 동시에 같은 파도에 올라 타 5초 이상 파도타기를 했다며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스웨덴 ‘분배’ 대신 ‘성장’ 택했다

‘시장주의 개혁’ 우파, 12년만에 총선 승리  
‘큰 정부’ 내세운 사민당 지지율 역대 최저

17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에서 야당인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했다.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유지 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평가돼온 이번 선거에서 시장주의적 개혁을 주장한 우파연합이 승리함으로써 스웨덴의 복지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웨덴 언론은 개표가 거의 완료된 결과 중도우파연합이 47.4%의 지지율을 얻어 46.6%를 얻은 집권 중도좌파연합에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 연합 총리 후보인 프레드릭 라인펠트(41)가 이끄는 보수당은 25.7%의 지지율을 얻어 지난 2002년 총선 당시 15%를 얻은 것에 비해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그러

나 요란 페르손(57)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은 역대 최저 지지율인 36.3%를 얻는 데 그쳤다.

개표 결과가 나온 후 페르손 총리는 패배를 시인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부를 이끌어온 페르손 총리는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연설에서 “우리는 선거에서 졌다. 그러나 우리 당은 패배한 정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라인펠트 당수는 야당연합의 승리를 선언했다. 라인펠트 당수는 “탐위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지난 70년 중 60년을 집권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스웨덴의 좌파가 정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무능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지구 온난화로 질병확산 기온상승...병원균 서식지 확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열대성 병원균들의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열대성 전염병 발생 지역에선 감염속도가 가속화되는 등 지구온난화가 급속한 질병확산이라는 또다른 재앙을 낳고 있다고 25일자 뉴스위크가 17일 보도했다.

올해 초여름 덴마크의 62세 노인은 발트해에서 낚시를 하던 중 비브리오 패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 볼니피쿠스(Vibrio Vulnificus)균에 감염돼 숨졌다.

지금까지 비브리오 볼니피쿠스균은 따뜻한 멕시코만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멕시코만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발트해에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최근 독일에서 조사한 결과, 발트해 10곳 가운데 9곳 이상에서 비브리오 볼니피쿠스균이 발견됐다. /워싱턴=연합뉴스

## 일·러 사학계 “발해는 고구려 계통”

중 사학계만 “발해는 중국 것”

왕정리는 나아가 80년대부터 발해의 사회통치 사상은 유가사상으로 사실상 발해 문화는 당의 문화라 할 수 있으며 당 왕조의 책봉을 받고 스스로를 당의 신하로 칭한 지방정권이라고 본격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발해사에 관심이 높은 남·북한을 비롯 일본, 러시아의 사학계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일본 학자 쓰다 소기치는 ‘발해사(渤海史考)’를 통해 발해국 전신은 말갈 7부족 가운데 속말갈로 고구려 문화의 이입과 당 문화의 수입을 통해 독자적인 고유문화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도 연해주에 터를 잡고 있던 발해에 대한 적잖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구 소련 사회과학원의 알렉세이 오를라드니코프 박사는 73년 ‘소련 극동 고고학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논문을 통해 “중국 중심주의 사관은 세계문화사에 위협되는 요인으로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중국 사학계의 주장을 공박했다.

북한 사회과학원은 70년대부터 발해국은 고구려 왕조를 계승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종교=연합뉴스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산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산우환기유니트

산우환기유니트

2007년 대학 수시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초단기 완성 프로젝트

"합격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  
중국어 입문부터 1500대비까지 5개월 집중반습!"

합격보 커리큘럼 + 50시간 집중반습

일	시간	수강료	장학금
1월	19:00~21:00	1,200,000원	100,000원
2월	19:00~21:00	1,200,000원	100,000원
3월	19:00~21:00	1,200,000원	100,000원
4월	19:00~21:00	1,200,000원	100,000원
5월	19:00~21:00	1,200,000원	100,000원

총계비: 6,000,000원

리즈자이나 中国語学院

233-9582